



기본간호학회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색션 편집의 분류틀에 대한 재고*

김종임¹⁾ · 김경희²⁾ · 백훈정³⁾ · 엄미란⁴⁾ · 장옥자⁵⁾ · 이우숙⁶⁾ · 전현숙⁷⁾ · 민호숙⁸⁾ · 오세영⁹⁾ · 송경애¹⁰⁾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술지 또는 학술 잡지는 연구자가 집필한 논문을 게재하는 잡지(Wiki encyclopedia, 2009)로 기본간호학회의 경우 연구자들 간에 학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기본간호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한 이래 2005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2008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사업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평가 신청을 한 학술지가 일정 수준이상 만족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0).

기본간호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1998년의 5년 간 연2회 발간해 오던 기본간호학회지를 1999년부터는 연3회로 증간하여 발행하다가 다시 2007년부터는 연4회로 증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학술지 평가의 항목에 학술지 발간 횟수가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본간호학회지의 인지도 증가에 따라 논문 투고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2008년 이전에 실시한 “게재 논문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명시의 편집체계에서 2008년 제15권 제3호(8월호)부터는 “접수일/ 수정

일/ 게재확정일” 명시의 편집체계로 변경하는 등 변화된 한국연구재단의 자체평가보고서의 기준에 맞추어 신속하게 변화하며 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논문투고규정도 APA 스타일에 맞추는 등 논문 보고체계의 국제 표준양식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연구의 표준화된 보고체제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오는 등 편집이사를 중심으로 한 기본간호학회지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이 단결된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2005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등재되는 등(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0)의 양적, 질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간호학회지는 2005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및 2008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인정 평가되기까지 “학술지 체계평가”, “패널위원 평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주제 전문가 평가” 부문에서는 학술지의 정체성 문제를 지적받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본간호학회지는 정체성 확인을 제고하는 차원에서의 연구에 박차를 가해 간호학 지식개발 분류에 근거한 기본간호학회지 논문 특성에 관한 연구(Sohng et al., 2007), 기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요어에 대한 연구(Chaug, Sohng, & Kim, 2008) 및 기본간호학회지의 연구 동향(Sohng et al., 2008) 등의 학술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학술지에 있어서 기본간호학 학습목표에 기반을 둔

주요어 : 간호 연구, 재고, 편집

* 2009년도 기본간호학회 정책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

- 1)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여주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hjp711@naver.com)
 4)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5) 해전대학 간호과 교수, 6) 전 적십자간호대학 부교수, 7) 대전보건대학 간호과 조교수
 8) 충남대학교병원 WOCN, 9) 서울여자간호대학 교수, 10)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접수일: 2011년 2월 24일 수정일: 2011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9일

20개 범주의 섹션 편집을 2008년 제 15권 제3호(8월호)부터 시도하였다.

섹션 편집 분류들은 2008년 제15권 제3호(8월호)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러한 제1기 섹션 범주의 경우 기본간호학 학습목표의 대분류에 근간을 두고 제정된 것으로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간호학회지 정체성의 제고 방안에 대한 안건을 토의하던 중 학부 교육의 기반이 되는 현행의 2005년 개정 기본간호학 학습목표에 기반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합일점을 찾았다. 그리하여 17개 기본간호학 학습목표 대분류 17개를 채택하고 여기에 기본간호학 “간호교육”에 대한 투고논문의 게재비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추가로 채택하였으며, “대체보완요법”이 간호의 중재 목록의 하나로서 기본간호학회 회원의 연구가 활발한 점을 들어 추가로 하였으며 “기타” 미분류 개념의 여지를 두어 모두 20개의 연구개념 분류들이 도출된 것이다. 이것이 제1기 섹션 범주였다. 제1기 섹션 범주를 적용하여 편집체계를 운영해오다가 “건강증진”범주와 “사회심리적 요구”범주가 기타 분류로 구분하기 보다는 독립된 연구개념 분류범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져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 상정을 하여 토의한 결과 위 2개의 범주가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의결된 것이 제2기 섹션 범주로 이것은 2009년 제16권 제1호(2월호)부터 적용되었다. 즉 제2기 섹션 범주는 22개 범주였다.

이러한 섹션 편집을 시도한 결과 2008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에는 학술지 정체성 제고에 대한 지적이 없어지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2개 호(제15권 제3호 및 제 15권 4호)의 학술지 발행에서는 20개의 섹션 범주들을 사용하다가 2009년 제16권 제1호(2월호)부터는 22개 범주로 섹션을 변경하는 등 투고된 논문의 범주 분류에 다소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간호학 학부 교육의 학습목표에 기반을 두고 “간호교육”, “대체보완요법”, “기타” 범주 등을 포함하여 제정한 섹션 범주 편집들이 기본간호학회지의 편집에 적합한 틀인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2008년 8월호부터 사용해왔던 20개의 섹션 범주 분류들과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22개의 섹션 범주 분류들을 모두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본간호학회지에 실린 연구 개념들의 분포를 파악하여 섹션 편집 방법을 적용하기 전·후의 연구개념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시기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시기에 대한 연구개념의 분포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 시기 이후에 게재된 논문들이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을 통과하여 좀 더 기본간호학회지의 성격 및 수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회지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 기본간호학회지에 실린 연구개념들의 분포를 파악하고, 섹션 편집 방법을 적용하기 전·후의 연구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범주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을 하여 기본간호학회지의 발전모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이를 위한 본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간(2005년 - 2007년)에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2008년 제15권 제3호(8월호, 이하 제1기 섹션 범주라 함) 및 2009년 제16권 제1호(2월호, 이하 제2기 섹션 범주라 함)의 2가지 섹션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포를 비교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기간(2008년 - 2009년)의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간(2005년 - 2007년)에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제1기 섹션 범주 및 제2기 섹션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포를 비교한다.

연구 방법

용어 정의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학술지평가방법에 의거하여 75점 이상 취득한 학술지로서 기본간호학회지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개년 간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12권 1호, 2호, 3호, 13권 1호, 2호, 3호, 14권 1호, 2호, 3호, 4호까지를 말하며 모두 147편의 논문이 이에 해당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학술지평가방법에 의거하여 80점 이상 취득한 학술지로서 기본간호학회지의 경우 2008년부터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2009년까지의 2개년 간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5권 1호, 2호, 3호, 4호, 16권 1호, 2호, 3호, 4호까지를 말하며 모두 105편의 논문이 이에 해당된다.
- 제1기 섹션 범주 :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8년 제15권 제3호(8월호)부터 섹션 편집에 활용된 20개의 연구개념 분류들을 말한다. 이것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간호의 기본개념”, “간호과정”, “건강사정”, “산소화요구”, “영양요구”, “배설요구”, “개인위생요구”, “체온유지요구”, “활동과 운동요구”, “안위요구”, “안전요구”, “성요구”, “감염관리간호”, “투약간호”, “상처간호”, “임종간호”, “수술주간호”,

“대체보완요법”, “간호교육”, “기타”의 20개 분류 범주로 구성되어있다.

- 제2기 색선 범주 : 제1기 색선 범주의 활용 중에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한 연구개념 분류틀을 말하며 2009년 제16권 제1호(2월호)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간호의 기본개념”, “간호과정”, “건강사정”, “산소화요구”, “영양요구”, “배설요구”, “개인위생요구”, “체온유지요구”, “활동과 운동요구”, “안위요구”, “안전요구”, “성요구”, “감염관리간호”, “투약간호”, “상처간호”, “임종간호”, “수술주기간호”, “대체보완요법”, “간호교육”, “기타”까지는 제1기 색선 범주와 같고 여기에 “건강증진”과 “사회심리적 요구”가 추가되어 모두 22개의 분류 범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2가지 색선 편집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 빈도의 차이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252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2008년 제15권 제3호(8월호, 이하 제1기 색선 범주라 함) 및 2009년 제16권 제1호(2월호, 이하 제2기 색선 범주라 함)의 2가지 색선 범주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자료 분석에 앞서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제1기 및 제2기 분석틀을 선정하기로 협의하였고, 연구범위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시기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시기를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다. 연구범위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시기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시기를 모두 포함하기로 한 이유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기 이후에 게재된 논문들이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을 통과하여 좀 더 기본간호학회지의 성격 및 수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자료에 일련번

호를 부여하여 각 자료를 분류틀에 따라 단순 합산만 하지 않고 자료의 출처가 명시될 수 있도록 주위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연구자들끼리 고유번호가 부여된 논문을 무작위로 40건에 대해 검사하여 분류가 타당한지를 재고하고 처음 분류한 자료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고유번호 논문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분류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지정된 2005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정된 2008년도 및 2009년까지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252편을 2가지 색선 편집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 빈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첫 번째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간(2005년-2007년)에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47편을 2008년 제15권 제3호(8월호) 및 2009년 제16권 제1호(2월호)의 2가지 색선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먼저 제1기 색선 범주에 따라 분석한 결과가 가장 높은 비율로 게재된 색선 범주는 “간호의 기본개념” 범주로 32.0%였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게재된 색선 범주는 “안위요구” 범주로 15.0%였으며, “간호교육(10.9%)”, “활동과 운동요구(7.5%)”, “감염관리간호(4.8%)”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다. 제2기 색선 범주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간호의 기본개념” 17.7%, “안위요구” 13.6%, “간호교육” 10.9%, “건강증진” 9.5%, “활동과 운동요구” 7.5%의 순으로 나타나 새로 추가된 범주인 “건강증진”으로 분산되어 순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1기 색선 범주에 비해 “간호의 기본개념”이 32.0%에서 17.7%로 다른 색선 범주로 분산됨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상위권 색선 범주의 변화는 없는 편이었다(Table 1).

두 번째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제1기 색선 범주 및 제2기 색선범주를 적용하기 시작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기간(2008년-2009년)의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05편에 대해 연구 범주 분포를 파악하였는데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개의 제1기 색선 범주를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주의 순서로 나열하면 “간호의 기본개념” 27.6%, “안위요구” 17.1%, “간호교육” 15.2%, “활동과 운동요구” 및 “감염관리간호”가 각각 6.7%의 순이었으며 나머지의 범주의 경우 0~5.7%의 범위를 차지하였다. 제2기 색선 범주인 22개의 범주를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주의 순서로 나열하면 “간호의 기본개념” 18.1%, “간호교육” 15.2%, “안위요구” 12.4%, “활

Table 1. Frequency & percentages according to Sectional Editorship during Candidate Registration of the Journal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05-2007) (n=147)

Classification	1st sectional editorship		2nd sectional editorship	
	n=147	%	n=147	%
Basic concepts of nursing	47	32.0	26	17.7
Nursing process	6	4.1	6	4.1
Health examination	2	1.4	2	1.4
Need for oxygen	3	2.0	3	2.0
Need for nutrition	5	3.4	5	3.4
Need for excretion	2	1.4	2	1.4
Need for personal hygiene	5	3.4	5	3.4
Need for temperature maintenance	0	0.0	0	0.0
Need for activity and exercise	11	7.5	11	7.5
Need for comfort	22	15.0	20	13.6
Need for safety	3	2.0	3	2.0
Need for sex	3	2.0	3	2.0
Care for infection control	7	4.8	7	4.8
Care for medication	3	2.0	3	2.0
Wound care	1	0.7	1	0.7
Care of people who are dying	0	0.0	0	0.0
Perioperative care	0	0.0	0	0.0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y	6	4.1	6	4.1
Nursing education	16	10.9	16	10.9
Health promotion			14	9.5
Psychosocial needs			10	6.8
Others	5	3.4	4	2.7

Table 2. Frequency & percentage according to Sectional Editorship after Registration of the Journal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08-2009) (n=105)

Classification	1st sectional editorship		2nd sectional editorship	
	n=105	%	n=105	%
Basic concepts of nursing	29	27.6	19	18.1
Nursing process	0	0.0	0	0.0
Health examination	4	3.8	3	2.9
Need for oxygen	2	1.9	2	1.9
Need for nutrition	1	1.0	1	1.0
Need for excretion	1	1.0	1	1.0
Need for personal Hygiene	6	5.7	6	5.7
Need for temperature maintenance	0	0.0	0	0.0
Need for activity and exercise	7	6.7	7	6.7
Need for comfort	18	17.1	13	12.4
Need for safety	0	0.0	0	0.0
Need for sex	4	3.8	4	3.8
Care for infection control	7	6.7	7	6.7
Care for medication	2	1.9	2	1.9
Wound care	0	0.0	0	0.0
Care of people who are dying	0	0.0	0	0.0
Perioperative care	1	1.0	1	1.0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y	1	1.0	1	0.0
Nursing education	16	15.2	16	15.2
Health promotion			8	7.6
Psychosocial needs			9	8.6
Others	6	5.7	5	4.8

동과 운동요구”, “감염관리간호”가 각각 6.7%의 순이었다. 나머지 범주들은 나머지의 범주의 경우 0~5.7%의 범위를 차지

하였는데 이를 제1기 섹션 범주와 비교하면 순서는 제2기 섹션 범주에서 “간호교육”이 2순위로 1개 순위가 상승하는 등

뒤바뀌기도 하였으나 상위 5개의 범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은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1기 색션 범주와 비교하였을 때 추가되어진 2개의 범주인 “건강증진”과 “사회심리적 요구” 범주로 인해 제1기 색션 범주에서 27.6%나 분포되었던 “간호의 기본개념”범주가 18.1%로 감소하면서 “건강증진” 7.6%, “사회심리적 요구” 8.6% 등의 범주로 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Table 2).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252편의 논문을 제1기 색션 범주 및 제2기 색션 범주의 2가지 색션 범주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제1기 색션 범주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로 게재된 색션 범주는 “간호의 기본개념”범주였는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47편으로 32.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29편으로 27.6%로 약간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게재된 색션 범주는 “안위요구”범주였는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7.1%로 별 변화는 없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게재된 색션 범주는 “간호교육”범주였는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

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0.9%,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5.2%로 약간 증가되었다. “활동과 운동요구”범주는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색션 범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7.5%,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6.7%로 별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다. 위의 네가지 색션 범주 즉, “간호의 기본개념”범주, “안위요구 범주”, “간호교육” 범주 및 “활동과 운동요구” 외에는 다른 17개의 범주는 0~5.7%의 범위에 걸쳐 논문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있었지만, “체온유지요구”범주, “상처간호”범주 및 “임종간호”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 모두 1편도 게재되지 않은 색션 범주였다.

“간호과정”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4.1%,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편도 게재되지 않아 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건강사정”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4%,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3.8%로 약간의 증가를 가져왔다. “산소화요구”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2.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9%로 별 변화가 없었다. “영양요구”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Table 3. Frequency & percentage according to Sectional Editorship during Candidate Registration and after Registration of the Journal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Classification	Candidate registration of the journal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Registration of the journal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1st sectional editorship		2nd sectional editorship		1st sectional editorship		2nd sectional editorship	
	n=147	%	n=147	%	n=105	%	n=105	%
Basic concepts of nursing	47	32.0	26	17.7	29	27.6	19	18.1
Nursing process	6	4.1	6	4.1	0	0.0	0	0.0
Health examination	2	1.4	2	1.4	4	3.8	3	2.9
Need for oxygen	3	2.0	3	2.0	2	1.9	2	1.9
Need for nutrition	5	3.4	5	3.4	1	1.0	1	1.0
Need for excretion	2	1.4	2	1.4	1	1.0	1	1.0
Need for personal hygiene	5	3.4	5	3.4	6	5.7	6	5.7
Need for temperature maintenance	0	0.0	0	0.0	0	0.0	0	0.0
Need for activity and exercise	11	7.5	11	7.5	7	6.7	7	6.7
Need for comfort	22	15.0	20	13.6	18	17.1	13	12.4
Need for safety	3	2.0	3	2.0	0	0.0	0	0.0
Need for sex	3	2.0	3	2.0	4	3.8	4	3.8
Care for infection control	7	4.8	7	4.8	7	6.7	7	6.7
Care for medication	3	2.0	3	2.0	2	1.9	2	1.9
Wound care	1	0.7	1	0.7	0	0.0	0	0.0
Care of people who are dying	0	0.0	0	0.0	0	0.0	0	0.0
Perioperative care	0	0.0	0	0.0	1	1.0	1	1.0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y	6	4.1	6	4.1	1	1.0	1	1.0
Nursing education	16	10.9	16	10.9	16	15.2	16	15.2
Health promotion			14	9.5			8	7.6
Psychosocial needs			10	6.8			9	8.6
Others	5	3.4	4	2.7	6	5.7	5	4.8

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3.4%,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0%로 감소세를 보였다. “배설요구”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4%,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0%로 별 변화가 없었다. “개인위생요구”범주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3.4%,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5.7%로 별 변화가 없었다. “안전요구”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2.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해당되는 게재 논문이 없었다. “성요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2.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3.8%로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감염관리간호”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4.8%,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6.7%로 약간 증가되었다. “투약간호”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4%,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0%로 별 변화가 없었다. “수술주기간호”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없었으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0%였다. “대체보완요법”범주의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4.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0%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타”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3.4%,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5.7%로 별 변화가 없었다.

다음으로 제2기 섹션 범주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Table 3). 가장 높은 비율로 게재된 섹션 범주는 “간호의 기본개념”범주였는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26편으로 17.7%,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19편으로 18.1%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를 1기 섹션 범주에 따라 분석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의 32.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의 27.6%와 비교해보면 섹션 범주가 2개 늘어남에 따라 분포가 분산되면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기 섹션 범주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의 섹션 범주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게재된 섹션 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안위요구”범주로 13.6%이었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간호교육”범주로 15.2%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전후 각기 비율의 순위가 달랐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게재된 섹션 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간호교육”범주로 10.9%였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안위요구”범주로 12.4%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전후 각기 비율의 순위가 달랐다.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섹션 범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건강증진”범주로 9.5%였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는 “사회심리적 요구”범주로 8.6%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전

Table 4. Frequency & percentage of all Articles according to Sectional Editorship during Candidate Registration and after Registration of the Journal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252)

Classification	1st sectional editorship		2nd sectional editorship	
	n=252	%	n=252	%
Basic concepts of nursing	76	30.2	45	17.9
Nursing process	6	2.4	6	2.4
Health examination	6	2.4	5	2
Need for oxygen	5	2.0	5	2
Need for nutrition	6	2.4	6	2.4
Need for excretion	3	1.2	3	1.2
Need for personal hygiene	11	4.4	11	4.4
Need for temperature maintenance	0	0.0	0	0.0
Need for activity and exercise	18	7.1	18	7.1
Need for comfort	40	15.9	33	13.1
Need for safety	3	1.2	3	1.2
Need for sex	7	2.8	7	2.8
Care for infection control	14	5.6	14	5.6
Care for medication	5	2.0	5	2
Wound care	1	0.4	1	0.4
Care of people who are dying	0	0.0	0	0.0
Perioperative care	1	0.4	1	0.4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y	7	2.8	7	2.8
Nursing education	32	12.7	32	12.7
Health promotion			22	8.7
Psychosocial needs			19	7.5
Others	11	4.4	9	3.6

후 각기 비율의 순위가 달랐다. “건강증진”범주와 “사회심리적 요구”범주는 모두 2기 색선 범주에서 추가되어진 범주로서 간호의 기본개념에서 함축되어있었던 범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시기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시기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연이어 제1기 색선범주 및 제2기 색선범주를 분석틀로 분포를 비교한 결과를 기술하여 보았는데 이 부분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결과이기도 하다(Table 4). 제1기 색선범주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 시기의 평균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색선 범주는 “간호의 기본개념”으로서 30.2%를 차지하였고, “안위요구”범주 15.9%, “간호교육”범주 12.7%, “활동과 운동요구” 범주 7.1%의 순이었다. 나머지 범주들의 경우는 0~5.6%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2기 색선범주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 시기의 평균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색선 범주는 “간호의 기본개념”으로서 17.9%를 차지하였는데 “건강증진”범주 및 “사회심리적 요구” 범주의 2개 범주가 추가된 것과 관련된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색선 범주는 “안위요구”범주 13.1%였고 이어서 “간호교육” 범주 12.7%로 제1기 및 제2기 색선범주와 동일한 순이었다. 그러나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색선범주는 “건강증진”범주로 8.7%를 차지하여 제1기 색선범주의 네 번째 순위인 “활동과 운동요구” 범주와는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1기 색선범주에서는 “간호의 기본개념”범주에 포함되어 있던 분류가 “건강증진” 및 “사회심리적 요구”로 분리되어나옴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논 의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회지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 시도된 색선 편집 방법을 적용하기 전·후의 게재논문의 연구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범주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기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기간에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252편의 논문을 제1기 색선 범주 및 제2기 색선 범주의 2가지 색선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학회지마다 정체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Seomun과 Koh (2007)가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본 결과 이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본 결과 간호학회지는 연구동향을 탐구하려는 연구(Choi et al., 2000; Shin et al., 2010; Suh et al., 2007)가 3편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간호학 지식분류 유형에 따른 논문분석(Chang, 2005)과 학회지 게재 논문 주요어 분석(Jeong, Ahn,

& Cho, 2005) 이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기본간호학회지에서는 대한간호학회지에서도 비슷하게 학회지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시도된 연구 논문이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탐구하려는 연구(Jeong et al., 2001; Sohng et al., 2007)가 2편, 간호학 지식분류 유형에 따른 논문분석(Sohng et al., 2008)이 1편, 학회지 게재 논문 주요어 분석(Chang, Sohng, & Kim, 2008)이 1편이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어떤 종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는지, 사용된 연구설계는 어떤 것인지, 또한 연구에 있어 어떤 경향의 연구로 나아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었다. 즉 기본간호학은 간호학의 근본 토대가 되는 특성으로 인해 여러 분과 전공 간호학 분야의 내용을 포괄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본간호학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개연성에 대해 정체성 연구로서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졌다.

한편 관련 학회에서의 정체성 제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도 탐색하였는데, 성인간호학회지에서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탐구하려는 연구(Park, Lee, Kim, & Cho, 2008; Suh et al., 2001)만 있었고 모두 2편이었다. 정신간호학회지와 지역사회간호학회지의 경우는 성인간호학회지와 마찬가지로 게재된 논문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탐구하려는 연구(Lee, Kim, Choi, & Chin, 2001; Lee, 2001)가 각각 1편 있었다. 간호행정학회지의 경우에는 학회지 게재 논문 주요어 분석(Seomun, Kim, & Koh, 2007)을 통해 학회지의 특성을 기술하는 논문이 1편 있었다. 아동간호학회지의 경우는 학회지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수행된 논문은 없었으며 다만 아동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개념을 아동간호학회지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위논문을 포함해 고찰한 논문(Han, Kim, Kim, & Kim, 2002)이 1편 있었을 뿐이다. 여성건강간호학회지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의 경우도 학회지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 논문은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그 외에 학회지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시도에서 수행된 연구에 대해 대한간호학회지 및 기타 간호학 관련 학회지를 검색한 결과 논문심사에 관한 연구가 2편(Cho, Hyun, & Cho, 2006; Kim et al., 2007)이 있었으며, 학회지 게재논문의 학적 가치와 성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 연구(Seomun & Koh, 2007)가 1편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편집체계에 대한 연구는 위의 대한간호학회지 및 산하 학회의 학술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처음 시도되는 연구로 비교하고 논의할 연구 논문이 따로 없었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한가지인 색선 편집 분류들에 대하여 논의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분류는 다수의 종 사이에 내재하고 있는 공통적 속성을 추출하고, 공통적인 속성을 내

포로 하는 類를 발견해내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반해 구분은 類에서 種으로 내려가 개념의 외연을 밝혀 개념의 의미를 명석하게 하는 것은 분석(Kim, 1996)이므로, 분류는 상승에 의한 종합적 방법이고 이에 반해 구분은 하강에 의한 분석적 방법이다. 학문영역에서 분류대상이 되는 학문의 논리적인 성질이나 성격이 분류의 기본이 되고, 분류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즉 자기목적적 분류가 되는 것(Kim, 1996)이기에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알맞은 심볼을 선정하여 그것을 사용할 집단의 동의를 얻는 일(Bloom, Engelhart, Furst, Hill, & Krathwohl, 1966)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재된 논문의 색선 편집에 대한 시도에 있어서 학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학자들 간에 동의를 위한 토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Harrod (1979)는 분류란 “사물의 유사정도에 따라 논리적인 순서로 사물을 배열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현 기본간호학회지의 색선 편집을 위한 분류의 틀은 “간호의 기본개념”이라고 하는 추상성의 정도가 높은 범주로부터 “사회심리적 요구”의 비교적 구체적인 범주까지 논리적으로 배열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나,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는 자기반성적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간호의 기본개념”이라는 범주는 간호학의 Domain 인간, 건강, 간호, 환경을 포괄하고 있는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 이해에 관련된 범주들, “산소화요구”로부터 “성요구”에 이르는 9개의 범주, 이 별도로 대등한 하나의 범주로서 나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2기 색선편집에서 추가되어진 “사회심리적 요구”는 추가적으로 순서없이 나열되어있다고 사료된다. 비슷한 종류의 오류가 “간호의 기본개념”이 하나의 범주로서 네가지 도메인을 포괄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건강증진”범주가 별도로 추가되어진 점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여겨진다. 지금 지적한 것은 경험적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제1기 색선에서 “간호의 기본개념”범주로 분류되는 논문이 30.2%이다가 제2기 색선 범주에서 “건강증진”과 “사회심리적 요구”범주가 추가되어지자 “간호의 기본개념”범주가 17.9%로 감소하면서 “건강증진”범주가 8.7%, “사회심리적 요구”가 7.5%를 나타내었다(표4). 제2기 색선 범주에서 “간호의 기본개념”에 “건강증진”범주와 “사회심리적 요구”범주 두 개의 범주의 비율의 합 16.2%를 더하면 34.1%가 되어 제1기 색선범주에서 “간호의 기본개념” 범주에서 나타났던 30.2%와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디 범주란 개념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비슷한 연구현상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개념들을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Lee, Lim, & Park, 1998). 이들 범주들은 상호배타적이어야 함에도 추상성의 정도에 있어 상하 중종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범주의 분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회 구성원간에 보다 심도있게 학문적 토의를 통해 동의를 구해가야 할 연구 영역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된 것이 본 연구의 논의 부분에서 밝힐 수 있는 일로 사료되어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회지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 기본간호학회지에 실린 연구개념들의 분포를 파악하고, 색선 편집 방법을 적용하기 전·후의 연구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범주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을 하여 기본간호학회지의 발전모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25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하여 2008년 제15권 제3호(8월호, 제1기 색선 범주) 및 2009년 제16권 제1호(2월호, 제2기 색선 범주)의 2가지 색선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분류되어진 자료를 연구자들간에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분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범주별로 빈도와 백분율, 범위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간호의 기본개념”(제1기 색선 범주 30.2%, 제2기 색선 범주 17.9%), “안위요구”(제1기 색선 범주 15.9%, 제2기 색선 범주 13.1%), “간호 교육”(제1기 색선 범주 12.7%, 제2기 색선 범주 12.7%), “활동과 운동요구”(제1기 색선 범주 7.1%, 제2기 색선 범주 7.1%)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범주들은 0~5.6%를 차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색선 범주의 분류틀에 대한 고찰 및 논의에서는 제1기 색선 범주 및 제2기 색선 범주의 분류틀 모두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점과 논리적인 위계질서가 부족한 점을 경험적인 자료로부터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기본간호학회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시행되어지기 시작한 제1기 및 제2기 색선 범주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본간호학회지의 논문의 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편집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분류틀에 대해서는 각 범주마다 추상성의 정도가 다르고 이로 인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는 점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기본간호학회의 자기목적적 분류틀에 대한 학회 구성원간의 보다 심도있는 토의와 합의가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REFERENCES

- Bloom, B., Engelhart, M. D., Furst, E. J., Hill, W. H., & Krathwohl, D. R. (196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1 cognitive domai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 Chang, S. O. (2005).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based on knowledge development classifications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206-212.
- Chang, S. K., Sohng, K. Y., & Kim, K. H. (2008). Comparison of key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with MeSH (2003-200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 558-565.
- Cho, K. S., Hyun, M. S., & Cho, D. S. (2006). Analysis of review contents of the submitted papers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focus: the submitted papers in 2003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197-205.
- Choi, K. S., Song, M. S., Hwang, A. R., Kim, K. H., Chung, M. S., Shin, S. R. et al. (2000).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 1207-1218.
- Han, K. J., Kim, H. A., Kim, S. Y., & Kim, J. S. (2002). An analysis of the concepts in child health nursing studies in Korea I: from 1990 to 2000.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8, 449-457.
- Harrod, L. M. (1979). *The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London: Andre Deutsch.
- Jeong, G. H., Ahn, Y. M., & Cho, D. S. (2005). Coincidence analysis of key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with MeS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420-1425.
- Jeong, I. S., Kang, K. S., Kim, K. H., Kim, K. S., Kim, W. O., Byun, Y. S. et al. (2001). The research trends in fundamental nursing - based on the analysis o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8, 132-146.
- Kim, H. W., Chung, M. S., Park, J. S., Suh, Y. O., Suk, M. H., Shin, H. S. et al. (2007). Developmental direction for review system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422-430.
- Kim, J. S. (1996). *Data Classification*.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0, May). The history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Retrieved April 30, 2010, from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Web site: http://www.kafn.or.kr/sub01_022.html
- Lee, E. O., Lim N. Y., & Park, H. A. (1998). *Nursing · health research & statistical analysis*. Seoul: Soomoonsa.
- Lee, I. S., Kim, Y. N., Choi, K. W., & Chin, Y. R. (2001). A trend of research in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2, 288-298.
- Lee, K. J. (2001).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 451-462.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0, April), *Information of program of NRFK*, Retrieved May 4, 2010,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eb site: <http://www.nrf.go.kr/html/kr>
- Park, Y. H., Lee Y. W., Kim O. S., & Cho, M. O. (2008).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 176-186.
- Seomun, G. A., Koh, M. S., & Kim, I. A. (2007). Classification of keywords of the papers fro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2-200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 118-122.
- Seomun, G. A., & Koh, M. S. (2007). Academic value and outcome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 546-552.
- Shin, H. S., Hyun, M. S. Ku., M. O., Cho, M. O., Kim, S. Y., Jeong, J. S. et al.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 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139-149.
- Sohng, K. Y., Kim, J. I., Lim, N. Y., Chang, S. O., Lee, K. E., Chung, S. K. et al. (2007).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JKAFN) based on knowledge development classification of nursing - 2006 year of published articles in JKAF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4, 150-156.
- Sohng, K. Y., Kim, J. I., Choi, D. W., Kim, A. K., Chung, S. K., Kim, K. H. et al. (2008).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 Based on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from 2001 to 200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 262-273.
- Suh, M. J., Kim, S. S., Song, M. S., Yee, M. S., Oh, E. G., Shin, K. R. et al. (2001). An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89-200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3, 571-580.
-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et al.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1013-1019.
- Wikimedia Foundation, Inc.(2010, April). *Haksulji*. Retrieved July 5, 2010, from Wikimedia Foundation Web site: <http://ko.wikipedia.org/wiki>

A Study to Identify Contents of the Journal through Review of Classification of Sectional Editorship*

Kim, Jong-Im¹⁾ · Kim, Kyung-Hee²⁾ · Paik, Hoonjung³⁾ · Eom, Mi-Ran⁴⁾ · Chang, Ock Ja⁵⁾
Lee, Woosook⁶⁾ · Jeon, Hyeon Sook⁷⁾ · Min, Hyo Suk⁸⁾ · Oh, Sei Young⁹⁾ · Sohng, Kyeong-Yae¹⁰⁾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4)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5)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6) Associate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7) Assistant Professor,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8)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9)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10)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data for development of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through reviewing classification of sectional editorship. **Metho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content then, the classifications of sectional editorship were reviewed. **Results:** The categories, “Basic concepts of nursing” (30.2%:17.9%), “Needs for comfort” (15.9%:13.1%), “Nursing education” (12.7%:12.7%), and “Needs for activity and exercise” (7.1%:7.1%) were most frequent through both the 1st and 2nd sectional editorship. **Conclusion:** Classification of sectional editorship was developed to clarify the educational purpose of fundamentals of nursing, and was modified through reflections by researchers.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sectional editorship is not a permanent formula, so using various viewpoints in further examination is needed.

Key words : Nursing Research, Review, Editorial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of 2008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ik, Hoonjung

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200 Myeongseong-Ro Yeosu-Eup, Yeosu-Gun, Gyeonggi-Do, 469-705 Korea
Tel: 82-31-880-5372 Fax: 82-31-885-7041 E-mail: hjp711@naver.com